

선거인단 150만 돌파... 민주 경선 '대박'

탄핵 인용시 10일간 추가 모집... 최종 250만 무난할 듯 결선투표 없는 매직넘버 70~80만... 후보간 쟁점 분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이 7일 오후 4시 현재 150만 명을 넘어선 151만8209명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최종 선거인단은 당초 목표였던 200만 명을 넘어 250만 명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 선고 3일 전까지 1차 선거인단 모집을 마치기로 했으며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1주일에서 열흘 정도 추가로 모집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한 이후 하루 신청자가 최소 6만~7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며 "탄핵이 인용된다

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자발적 참여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각 후보 측은 선거인단 참여 열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측은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 열망이 높다는 것"이라며 "결국 준비된 후보로 표심이 몰리며 여론 조사 결과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전 대표 측은 선거인단 모집 기간 동안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계속 고공 행진을 했다는 점을 들어 경선 승리에 대한 긍정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 측은 일반인들

이 대거 선거인단 모집에 참여하고 있다며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숨은 표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도 팬클럽인 '손가락혁명군'을 중심으로 많은 지지자가 선거인단으로 등록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시장 측에서는 탄핵 인용 이후, 적폐 청산에 대한 여론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선명성에서 확고한 위치를 선점한 이재명 시장이 이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당 내에서는 결선투표 없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후보가 70만~80만 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투표율이 60%면 120만~150만 명 정도가 투표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과반수 득표를 하려면 그 정도 숫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선거인단 모집이 마감되면 문 전 대표가 40만 표 내외의 고정 지지를,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20만 표 정도의 지지층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표가 대세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동적인 상황이라는 평가다. 문 전 대표에 대한 민심의 흔들린 지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안 지사 측에서는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국민통합의 열망이 높아지고 중도 및 온건 보수 진영에서의 선거인단에 대거 유입된다면 지난 2002년 '노무현 돌풍'과 같은 바람과 이번을 기대하고 있다.

이 시장 측에서는 탄핵 인용 결정 이후, 새로운 시대와 변화를 원하는 열망이 결집할 가능성이 높아 결선 투표 등을 통해 최대 이번의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동욱기자 tuim@



안철수 "4차산업에 미래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오른쪽)가 7일 오후 서울 역삼동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를 찾아 모바일 혈액진단기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의 선택은 안희정... 非文 결집 관심

의원 멘토단장 수락... 오늘부터 안과 1박2일 호남 동행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사진> 의원이 7일 '문재인 대선론'을 견제하고 나섰다. 이날 의원멘토단 단장으로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한 뒤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다.

박 의원은 "문재인 캠프가 공조직을 섭렵했다고 하지만 선거인단 수가 200만 명을 넘어가면 공조직의 힘으로만 버티기에는 넓은 바다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탄핵 후 새로운 리더십은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안 지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박 의원은 안 지사가 '선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을 때 해당 발언에 '분노가 빠졌다'고 한 문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하는 안 지사의 모습이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안 지사가 '정당생활 30년 동안 분노를 삭이면서 살아와 형님 같은 문 전 대표도 왜 그 말(선의 발언)을 했는지 알고 계산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하니 맘이 아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안 지사가 분노를 분노로 감지 않고 분노를 맘 속에서 버려려 노력하는 것을 느꼈다"는 박 의원은 "그 당시 안 지사가 외롭다는 것을 느껴서 내가 도와줘야 할 것 같



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박 의원은 비문(비문재인) 진영의 대표적인 의원으로 '중랑감'에다 대중성까지 갖추고 있다. 이를 감안했을 때 '연정과 선의' 때문에 최근 흔들리고 있는 안 지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당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박 의원은 비대위원장 시절 예산 문제로 안 지사와 활발한 협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지사가 2015년 10월 박 의원의 북 콘서트 때 초대손님으로 출연한 인연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친문계에 맞서 안 지사를 지원하기로 한 박 의원은 김 전 대표의 탈당을 두고 '탈당 후에도 경제민주화와 정치를 같이 잘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한 문 전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문 전 대표의 이야기에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미 탈당하셨는데 어떻게 같이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에 몸담았더라도 (적폐에) 책임을 느끼는 사람들이 깊은 반성을 한다면 용서하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고 말해 안 지사와 마찬가지로 개혁과제 동의를 전제로 한 한국당과의 '대연정'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의원멘토단 회의에 처음 참석해 안 지사 지지를 본격화한 박 의원은 8~9일 이번 대선후보 경선의 승부처인 호남에 들르는 안 지사와 동행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도 '공약 전쟁' 돌입

안 "4차산업 인재 10만 양성" "공공부문 11만명 축소" "공공임대 100만호 공급"

국민의당 예비 대선주자들의 공약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것이다.

안 전 대표는 7일 과학기술-창업정책 공약 발표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80, 빅데이터 78,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문 인력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청년과 중장년을 교육시켜 10만명 전문기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순하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순하규의 개혁정책 평민만세(평범한 국민이 살만한 세상)' 시리즈를 소개했다. 이날은 그

첫 번째로 공공부문개혁안인 '공공만세'를 내놨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퇴직자 채용을 절반으로 줄여 5년 간 11만 명을 축소하는 정부조직 다이어트, 19개 특별회계의 절반을 일반회계로 전환, 공공기관 지원 금액을 박근혜 정부 출범 전 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정부 부문을 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공공부문 강화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의 차별화를 노린 포석으로 읽힌다. 하지만, 손 전 의장의 대선 공약 발표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묻히며 '타이밍과의 악연'을 이어갔다.

천정배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세입자의 권리 보호 ▲주거급여 예산 지원대상 확대·금액 현실화 ▲부동산 투기 근절 ▲주택가격지수 선물제도 등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주거안정 5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임동욱기자 tuim@

바른정당 "한국당, 탄핵 인용시 해체해야"

"기각시 의원직 총사퇴"... 현재 중증 '5당 대표 공동성명' 제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이번 주를 '탄핵비상주간'으로 선포한 바른정당이 7일 비상 의총을 개최하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탄핵 기각시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고 하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배수진을 치는 한편, '현재 판결 중증'과 '국민통합'을 전면에 내걸었다.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탄핵 인용시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른바 '스탠딩' 비상 의총을 열었다. 의총장 뒤 벽면과 테이블은 '현재 중증' '국민통합'이 새겨진 현수

막이나 손팻말이 배치됐다.

정병국 대표는 "바른정당은 탄핵 기각시 의원직 총사퇴로 우리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결기를 보인 뒤 현재 판결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바른정당은 무조건적 승복과 국민통합을 위해 절대적 헌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이 자리에서 "현재 중증과 국민통합의 일념으로 갈등과 대립 해소에 앞장선다", "여야 대표가 한데 모여 현재 결정을 중증하는 '5당 대표 공동성명' 채택을 제안한다"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정현 부친상 빈소 정치인사 발길 줄이어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부친상 빈소에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잇따랐다.

지난 6~7일 순천시 순천성가족로병원 원장제식장에 마련된 이 전 대표 부친의 빈소에는 정치권 인사를 포함한 문상객들이 줄을 이었다. 빈소에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보낸 조화가 놓였고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진석·김현아·윤영석·성일종 의원 등이 직접 방문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과 바른정당 이진복 의원도 조문했고, 이낙연 전남지사도 빈소를 찾았다. /최권일기자 cki@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정우택 원내대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주승용 원내대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중앙부처 장관들도 각각 조화와 조기를 보냈다. 박 주선 국회부의장, 서청원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빈소를 찾아 이 전 대표를 위로했다.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 경매/매매

<h2>풍암동 중심 상가</h2> <p>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650,000,000</p>	<h3>서구 동천동 공장 창고</h3> <p>대지 370평 건물 97평 최저가 681,578,000 감정가 1,217,104,900</p>	<h3>서구 매월동 상가 사무실</h3> <p>대지 261평 건물 458평 최저가 1,450,531,000 최고가 2,072,187,000</p>	<h3>문화의전당 옆 오피스텔</h3> <p>대지 215평 건물 467평 최저가 1,492,071,000 감정가 2,131,071,000</p>	<h3>중흥동 상업지역 토지</h3> <p>대지 612평 최저가 2,126,985,000 감정가 3,038,985,000</p>
	<h3>북구 중흥동 숙박시설</h3> <p>대지 91평 건물 340평 최저가 425,000,000 최고가 948,794,100</p>	<h3>화정동 상가사무실</h3> <p>대지 48평 건물 160평 최저가 382,407,650 감정가 382,407,650</p>	<h3>운영동 기전빌라</h3> <p>22평형 6가구 (수역성 아주중용) 대지 110평 건평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차 6,000만원 월세45만원</p>	<h3>제일오피스텔 29형</h3> <p>감정가격 9,000만원 금 매매 6,2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p>

010-8559-8905 이용국 팀장 **공인중개사 부동산경,공매컨설팅** **010-3070-2147 유 여사**

초보자 00명 모집 062)232-9994